

## 기독교 무용 창작에서 섬김의 필요성

박순자 숙명여대 무용과 명예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년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2019년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한국의 파송 선교사는 171개국, 총 28,039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은 교회개척이 가장 많았고 현지인 선교훈련 및 동원, 복지/개발, 캠퍼스, 일반 교육 순으로 나타났는데 어린이/청소년 사역, 문화/스포츠 사역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미 2003년 선교적 목적으로 CCD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응답자의 67.17%가 좋은 현상이라고 하였으며 특별히 20대에 반응이 다른 연령대에 2배에 달하는 수치(장소희, 2003)가 나타나 젊은 세대를 선교함에 실용무용이 나아가 기독교 무용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이선경, 김수진, 2016). 나아가 이제 선교의 현장에서 문화사역의 수단으로 쓰임 받고 있는 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무용은 굳이 언어를 익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짓 언어를 통해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현장에서 그 파급력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자는 30여년 전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뒤 성경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C.C.C 성경공부를 하고, 새벽기도와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세례를 받았다. 그 후, 과거 내 자신이 기쁘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과거의 정욕적 무용들을 내려놓게 되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무용만을 하기로 결심하게 하셨다. 차츰, 구원을 얻기 전 만났던 선·후배, 제자들을 전도해서 선교적 무용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작품을 만들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셨다. 그것은 무용 자체가 무용 만들기가 목적이 아닌 작은 일이나 큰 일에 주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도록 하신 것이다. 거듭난 신앙인이 되었지만 내 안에 교만, 혈기, 고집, 자랑 등 무용에 대한 자부심이 타인을 배려하거나 고려하기보다 나의 마음과 계획안에서 추진만 한 것이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못하였다.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다는 그 은혜가 삶 속에 적용되기에는 부족하고 미약하였다. 더불어 기독교적 무용을 한다고 모인 사람들은 다양성이 많았다. 연

령의 다양성, 전공자와 비전공자, 전공유형에 따른 다양성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초신자와 직분자 등 실기가 잘 되면 신앙심이 부족하거나, 교회 출석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 신앙심이 좋으면 실기가 안 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신앙심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 하는지, 무용 실력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 하는지, 다양한 갈등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다양한 조건과 배경의 구성원을 조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죽기까지 인류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지만 예수님의 섬김이 능력으로 나타나 개인적 능력이 되기에는 서로의 사랑과 믿음, 인내, 기도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기독교 무용을 완성시키는데 오직 창작자 또는 지도자나 배우는 자와 주변의 기독교 무용의 완성을 위해 만나는 인과관계 등의 요인과 과정의 전적인 섬김의 순종과 실천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무용은 선교의 수단으로 왕성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무용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있게 증거하는 수단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독교무용의 창작과정을 거쳐 완성 될 때 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요인이 있다. 즉 서로간의 신앙적, 적극적 협응으로 선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참여자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 무용의 창작 및 완성을 위한 모든 요인을 이해하고 습득, 창작을 해야 한다. 더불어 창작의 방법과 창작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현시점에서 숙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하여 선교적 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연구를 하게 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기독교 무용의 현상

기독교 무용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가운데 몸짓, 율동 등 무용적인 요소를 포함한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주관 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가는 일체의 것이라 볼 수 있다(박순자,2004). 또한 기독교 무용의 범위는 교회 예배를 위한 것,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한 것, 교회에서 성도간의 교제를 위한 것, 교회의 연령별대의 교육적, 친목적, 선교적 목적을 위한 것, 기독교적 순수 무용 공연, 영·유아부에서 초·중·고·대학의 일반 교육적 목적, 신학교 및 신학대학내의 선택적 교육을 위한 것, 열방의 복음사역을 문화사역 목적 등으로 광역화 되어 있다(박순자,2004). 이러한 기독교 무용의 총체적 요인과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자면, 무용이 기독교 문화로서 생소함은 오랜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나타난 무용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 때문이라 할 수 있으나 무용에 대한 억압과 거부적인 모습을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 무용은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무

관심과 배척의 분위기에서도 기독교 무용은 기독교 무용가들을 통해서 그 위치가 정체성을 잡아가고 있다고 하였다(김준수, 2012).

한편, 조선의(2015)는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에 대한 막대한 책임과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현대의 선교는 서구 중심에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밝혔던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 선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 초기에는 남성선교사의 보조적 역할로 여성이 선교활동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여성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며 여성들의 은사가 효과적으로 개발되어 세계 선교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의 여성 중심의 기독교 무용의 활성화는 교회 중심의 활동 및 미자립 교회, 교도소, 군인, 노숙자 등과 같이 약한 자들과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나 종교 페스티벌, 수교공연 등과 같은 국가적 행사, 해외 선교에 이르도록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는 협력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조선의, 2015).

이외에도 기독교무용은 공연 예술문화 영역에서 순수 예술 활동 및 교육기관의 교육 교과목의 도입, 치료목적의 의료무용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기독교 무용의 창작과정과 현상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는 말씀과 같이 기독교무용을 창작함에 있어 창작자가 흔들리지 않고 가져야 할 목적이 바로 누구를 위한 무용작품이나 하는 것이다. 무용을 한다는 것은 그저 움직이는 것이 아닌 무용을 하는 목적이 온전해야 하기 때문이며 기독교무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무용이 창작되는 과정 어느 하나라도 믿음으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무용의 창작의 요소 및 과정은 공연의 목적과 공연장에 따라 변수가 발생한다. 창작의 제재 설정, 무용수 선정, 음악 선정, 동작 결정, 공간 구성, 의상 및 분장 결정 및 리허설, 연출자 결정 등에 의하여 무용이 완성되어져 간다. 일반적으로 독무, 2인무, 3인무, 군무 등에 따라 지도자가 창작을 하기도 하고 무용수들이 스스로 창작을 하기도 한다. 나아가 최종적 리허설 반복을 통하여 작품완성도를 추구한다. 또, 일반적 무용은 지도자, 창작자, 선배 등과 같이 구심점을 인본주의적으로 구성하고 윤리성에 의하여 완성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무용 창작은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따라 믿음과 성령에 의존하여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 관객에게 보인다는 자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적 사명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간 본 연구자는 기독교인들과의 만남 및 교제, 연습 혹은 기독교 작품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무용이라는 일반적 개념 및 실제와 이론에 대하여 기독교 무용인들이 익숙하지 못한 경우를 다수 접하

게 되었다.

나아가 기독교무용이 실현되는 현장에서의 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공자들이 대다수라는 것

둘째, 무용창작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교육과정을 접하지 못한 점

셋째, 믿음으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영적 합력이 순탄하지 못한 점

넷째, 전공자들에 의해 비전공자가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체험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

다섯째, 준비과정이 부족한 가운데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점

여섯째, 충분한 이해 없이 영상매체 등의 각종 자료를 통하여 기독교무용을 모방, 수행하는 점

일곱째, 교회 내 무용 전공자들이 다수이지만 예배 및 선교의 현장에서 그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무용전공자들 역시 기독교적 무용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목적의식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

여덟째, 교회에서 영·유아, 초등, 중·고등, 대학, 청년, 일반, 노인 등의 구성팀은 많으나 기독교적

무용에 대한 지도자간에 깊고 신실한 교제 및 교류, 연구가 부족한 점

아홉째, 국내외의 선교 활동이 많은 반면에 기독교적 무용의 체계적, 선교적 준비가 필요한 점

열 번째, 교회 내 무용인 또는 무용팀 간의 갈등이 근간의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기독교 무용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언어의 의미를 생각하며 신체를 활용하여 기도하는 몸의 언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무용은 성경을 바탕으로 기도문이나 말씀을 몸으로 표현하고 그로 인해 단순한 신체적 활동을 넘어서서 계속적인 기도를 생각하면서 움직임을 반복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일반무용과 달리 기독교 무용이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자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몸을 통해 기도를 하는 예술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최세희, 2014). 또한, 프레이즈 예술신학원 학장이셨던 박연훈 목사는 기독교 무용은 기도라고 하였으며 성서에서 몸은 하나님의 성전(고린도전서 6장 19절)이라고 하였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성경 말씀과 기도, 찬양, 영적인 것, 즉, 영육이 하나가 되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표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임혜영, 2015). 또한, 이정인 예술감독은 기독교는 타종교와의 차별성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그 차별성의 기준은 성서에 있다고 하였다(이정인, 2009).

톨스토이는 오늘날 예술계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 유의의성(有意義性)이 예술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톨스토이, 2005). 이는 비슷한 스타일(style)을 하나의 영역으로 규정하여 정의를 내린 후 이 정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술이나,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내용 중심이 아닌 주류냐 또는 비주류냐에 따라서 예술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집단 구성 및 활동이 장기간 전세계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독교 무용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5~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

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과 같이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분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0~17절에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1장 15절에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독교 문화영역에서 큰 획을 긋고 있는 기독교 무용 문화는 오늘날 나타나는 음성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극적이고 순전한 복음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 3. 기독교 무용에서 극복해야 할 난제

세상에 존재하는 예술 장르에서 특별히 무용은 인간의 내면세계와 외면세계의 온전한 연합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표출하고 표현하는데 무용미를 형성함에 있어 외면적 요소와 내면적 요소의 연합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았다(고바야시 신지, 1983). 표상성이란 시각성에서 미를 형성하며 자유로운 생명을 통해 내·외면적으로 미를 창조해 가는 활동을 일컫는데 내면적이든 외면적이든 어느 한쪽으로부터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두 활동의 상관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술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질을 통해 작가의 심상을 표현하고, 음악은 인간의 목소리나 악기, 물체 등을 통하여 표현한다. 연극이나 영화의 경우 무용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으로 행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예술들의 예술행위가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용은 특별히 인간의 몸 즉, 신체의 기능과 내면의 세계를 조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창작자가 원하는데로 100%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고도의 난이도의 대상을 통하여 성취하고 완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독특한 특성이 존재하는 장르라는 것이다. 음악은 계명을 통해서, 미술은 색깔을 통해서, 조각은 형태를 통해서 마음과 영혼이 없는 물체에 작가의 심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연습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도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닌 악기, 종이, 물감, 철, 찰흙 등과 같은 물체이기에 피곤해 한다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는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용은 인격체인 사람과 사람들 간의 협응을 통하여 표현을 완성시킨다는 점에서 고도의 예술이며, 가치성이 높은 예술인 것이다. 일반 무용예술의 창작은 엄격하게 창작자의 철학과 미의 세계관을 선호도에 따라서 유기적 관계를 맺고 행위예술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관계도 용의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기독교 무용예술은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적 전쟁을 함께 치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많은 영혼을 구하려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말씀과 사랑, 믿음과 소망, 성령의 충만함도 믿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 인격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온 몸을 다하는 무용은

일반 무용예술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마땅히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 하며 해야 할 것이다.

#### 4. 기독교 무용의 산제사를 위한 섬김의 적용

앞서, 기독교 무용에서 극복해야 할 난제에서 기독교무용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 뿐 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입은 자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늘 중요시 하는 것이 ‘코람데오(Coram Deo)’이다. 코람데오의 태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독교 무용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는데 최근 「신앙과 삶」에서 문주은은 코람데오(Coram Deo)의 삶인 것을 계속 붙들고 전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생명의 진리는 선악과를 따먹듯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아내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 안에서 넘치는 자유와 기쁨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또한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길 기도했었다고 하였다(문주은, 2020).

특별히, 인체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고 전달하는 무용이라는 도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자칫 한 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에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춤추는 목회자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태도를 지켜가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나 배우는 자나 입술의 말을 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고 하였고 입술의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지도, 수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라는 시편 34편 13절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도자나 배우는 자들 간의 입술의 사용을 오직 주께 하듯 섬겨야 한다. 특별히 보이는 외관의 지적이 많은 무용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지도자와 배우는 자들 간의 입술의 죄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4절의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시기와 다툼, 자랑치 않음,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입술의 죄악은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2절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는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굴레를 써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 되는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에베소서 4장 29절)”고 하셨다. 입술로 지은 죄로 인하여 몸의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섬김을 위해서는 기독교 무용의 목표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 하였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참이 목적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진 에드워드 비이스 2세(Veith, Gene Edward)는 예술에는 영적 차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줄 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성경이 승인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김수진, 2015). 따라서 기독교 무용의 목표 설정은 반드시 성경을 토대로 해야 하며, 성경에서 제시하는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섬김의 시작은 행위에서 비롯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였으며, 8절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기록하였다. 이 두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자와 지도자의 행위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며, 지도자는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을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라는 시편 119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지도자, 배우는 자와 관계치 않고 기독교 무용인이라면 행위를 온전케 하며 여호와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형식적인 준법보다는 우리에게 보이신 그의 사랑을 이웃에게, 특히 그가 사랑하시는 약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런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이웃 사랑에서 부터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손봉호, 2021). 이처럼 기독교 무용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기독교 무용을 향유하는 회중에게까지 행위의 섬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넷째, 섬김을 위하여 온전하게 협력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가 한 몸 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는 로마서 12장 4~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섬겨야 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단원을, 단원이 지도자를, 무용단이 회중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독교 무용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셨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개인의 유익이 아닌 많은 이들이 함께 협력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 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

케 하실 것이요”라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사함으로 정결케 되었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4절~15절에는 유월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섬김의 본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누군가의 행위로 섬김을 배워갈 수 있으나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섬김을 배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III. 결론

오늘날 기독교무용은 여성중심의 선교의 수단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 무용의 창작의 요인은 주제, 음악, 동작, 공간구성, 의상, 분장, 무대연출 등의 선정과 연습을 통해 완성된다. 하나의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다양한 관계성과 구성요소, 연습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독교무용은 다수의 비전공자, 무용창작과정에 대한 지식의 결여, 영적 협력의 부족, 기독교적 무용 지도자 간의 소극적 협력 등, 선교적 목적을 위한 전반적인 체계성, 지속성, 유기성의 부족과 무용인, 무용팀 간의 갈등 및 교제나 협의의 부족현상으로 기독교무용 작품의 창작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무용 창작 전 과정의 섬김의 필요성을 살펴봄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는다.

첫째, 기독교 무용 창작을 위해서는 창작의 주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20절). 따라서, 창작의 주체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전인 것을 인정하고, 작품을 향유하게 될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순종하여 구원을 받은 생명임을 잊지 않고 섬김으로 늘 겸손하게 주께 하듯 하여야 한다.

둘째, 기독교 무용 창작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무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체 구성 및 무용의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잠언 2장 1~2절에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얻으라고 하였으며 지식을 구하는 것을 은을 구하는 것처럼 찾으라고 하였다. 특별히 무용은 인간의 몸 즉, 신체의 내·외면의 성령에 의한 미적 현상을 조화시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품의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100%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말씀의 기도와 연습이 필요하다.



셋째, 기독교 무용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범사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리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즉,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무용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기독교무용은 자신의 외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의상, 분장, 동작, 신앙적 고백 등과 같은 외면적 요소의 표현이 아닌 성령의 메시지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하였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8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하였다. 즉, 창작자는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을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로 늘 영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 또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도자를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일체감을 갖게 된다.

다섯째, 기독교 무용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온 마음을 합하라고 하였다. 또한, 3장 16~17절에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였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의 지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기독교 무용 역시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어 기독교 무용을 창작하고 전달함에 있어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고 역사 할 것이다.

여섯째, 기독교 무용의 창작의 전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랑을 증거 할 수 있는 섬김의 능력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였다. 이처럼 무용창작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며 주님과 그의 교제, 기도, 성경적 말씀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관객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된다. 순전함으로 복음적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무용창작 전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낮은 자세를 생활화 하여야 한다.

기독교무용을 공연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낮아짐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만 쓰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다. 기독교무용인은 춤추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복음의 도구로만 쓰임 받는 기독교 창작 무용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기독교무용인들이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할 때, 기독교무용을 통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기뻐하실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바야시 신지, 김경자 옮김(1983). **무용미학**, 서울, 현대미학사.  
[Kobayash Shinji, Kim. K.J(1983). Dance aesthetics, Hyeundaenihagsa.]
- 김수진(2015). **기독교 예술관을 적용한 무용예술의 방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98.  
[Kim. S.J(2015). Direction of the dance art by applying christian artistic viewpoint. Sookmyoung Sniversity, Seoul, Korea. 98]
- 김준수(2012). **개혁주의 세계관에서의 한국선교무용에 관한 비판 수용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7.
- 박순자(2004). **21세기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 금광미디어.  
[Park. S.J(2004). 21st Century Christian Dance Approach. Geumkwang Media]
- 신국원(2021). **신앙과 괴리된 삶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Vol.11. 3  
Shin K.W(2021). Wishing for a complete restroration of a life apart from faith. Faith&Life. Vol.11. 3]
- 문주은(2020). **그 배에서 나와서 걸으라**, 신앙과 삶 2020Vol.8. 22  
[Moon. J.E(2020). Get out of the boat and walk, Faith&Life. Vol.8. 22]
- 이선경, 김수진(2017). **선교적 목적을 위한 실용무용의 활성화 방안**, 기독교학문학회 춘계학술대회 통권 24.
- [Lee. S.K, Kim. S.j(2016). A plan to activate practical dance for missionary purposes, Korean Association of Christan Studies Vol.24]
- 임혜영(2016). **기독교무용작품 「70년, 희년의 춤」을 통한 대중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8.
- [Lim, H.Y(2016). Measures for the Popularization of Christian Dance through the Work, 「The 70th Year Jubilee Dance」.Sookmyoung University, Seoul, Korea. 8.]
- 장소희(2003). **기독교무용의 인식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Jang, S.H(2003). Investigation into the Plan for Activation of Christian Education through Its Understanding Research.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 조선의(2016). **선교사역을 위한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리더십**.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2-14.  
[Cho, S.H(2016). Leadership of Christian Dance Leader for missionary Works. Sookmyoung Sniversity, Seoul, Korea. 12-14.]

- 진 에드워드 비이스 2세(1994).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침반출판사.
- [Veith, Gene Edward(1994). State of the arts. Nachimbanchulpansa. ]
- 최세희(2014). **기독교 선교무용 수행체험**.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4.
- [Choi, S.H(2014).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Missionary Work of Christian Dancers. Sookmyoung Sniversity, Seoul, Korea. 24.]
- 선교신문. 한국선교사 작년보다 46명 증가... 은퇴 선교사는 2년 연속 800명대(2020.1.14.)  
<https://missionnews.co.kr/news/581786>.
- [“46 more Korean missionaries from last year, 800 retired missionaries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Retrieved of from <https://missionnews.co.kr/news/581786> (2020.1.14.)]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기독교 무용 창작에서 섬김의 필요성	발표자	박순자
		논찬자 (소속)	양재진 (숙명여자대학교)

본 논문은 “기독교 무용 창작”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기독교무용은 선교의 현장 뿐 아니라 예배의 현장에서도 문화사역의 수단으로 널리 쓰임 받고 있으며 파급력 또한 높습니다. 또한 현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를 통한 기독교무용채널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본질이 변질되지 않으며, 기독교무용을 창작하는 방법이나 창작자의 태도에 대한 본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무용을 전공한 전공자로서 연구자와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 신앙심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 하는지, 무용 실력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 속에서 다양한 조건과 배경을 조화시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전적인 섬김의 순종과 실천을 우리 마음 밭에 새겨야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는 기독교무용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열 가지 현상을 정리하고, 순탄하지 못한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입술의 말을 순화해야 하는 것, 섬김을 위해 기독교무용의 목표를 성경을 토대로 확정하는 것, 또한 섬김의 시작이 행위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온전하게 협력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무용 창작에 있어서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창작의 주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성전임 것을 인정해야 하고,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된 신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의 삶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리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랑을 증거하도록 섬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독교무용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논평을 마치며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무용을 시작하는 많은 비전공자들이 본 논문을 교과서 같이 공부하고, 많은 시간에 걸친 신체훈련과 창작에 대한 이론과 적용에 대한 배움의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구자님께서 계속하여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